

목포 군정청 군의관이 그린 청년 DJ 초상화 찾았다

“김대중의 삶은 20세기 한반도의 역사다.” -김대중 자서전(삼인 퍼낸) 책날개의 첫 문장.
 광주일보와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손태규(저널리즘 전공) 교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946년에 그려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찾아냈다. 당시 미군정 군의관을 지낸 한 서양화가의 집 거실 벽에 66년 동안 걸려있던 이 그림은 기증의사를 밝힌 군의관의 뜻에 따라 빛을 보게 됐다.
 이 초상화는 김 전 대통령의 삶과 한국 현대사를 추적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다.

美 필라델피아 미망인 나오미씨 66년째 보관 군은 의지 담긴 표정...남편 뜻 따라 기증 의사

#청년 김대중을 화폭에 담다

1946년 해방 후 어수선하기만 했던 목포에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 목포상고를 졸업하고, 전남기선주식회사에 근무하던 22살 청년 김대중의 첫 딸 ‘소희’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해 숨을 거뒀다.
 미군정청 애브라함 긴스버그(1918~1994년)는 군 막사에서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한국인들과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생전, 긴스버그는 그의 아내 나오미 긴스버그(88)에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았고, 김대중이 통역을 도와줘 함께 군 막사에서 잠을 자면서 환자들을 돌봤다”고 회상했다.
 긴스버그와 청년 DJ는 이 기간, 미국의 역대 대통령과 이들의 정치 일생에 대해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또 긴스버그는 “당시 DJ가 미국 사람보다 미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대화 중간 중간 ‘재능이 뛰어난다’(brilliant)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시간이 흘러 DJ가 미국에서도 유명해지자 그는 자신의 아내와 미국의 유명 심장분야 의사이기도 한 아들 로버트 긴스버그에게 “초상화를 DJ에게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 1994년 세상을 떠났다.



만년의 긴스버그씨

나오미 긴스버그는 “지난 1999년 DJ의 미국 방문 소식을 듣고, 한국대사관에 초상화 사진과 사연을 썼더니 ‘보내달라’는 답변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직접 만나 주고 싶어서 거절된 뒤 기회가 없어 기증을 못했다”고 말했다.

DJ 초상화는 최근 필라델피아에서 ‘중국어’를 주제로 열린 한 토론 모임에 참가했던 손태규 교수가 나오미 긴스버그를 만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손 교수는 “미망인은 여전히 거실 벽면에 이 초상화와 DJ 관련 신문기사를 붙여놓고 있었다”면서 “기증할 뜻을 밝혀 세상에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초상화에서 찾은 역사의 한 장면

이 초상화를 통해 DJ가 ‘20대 초반 아픈 사람들을 돌보던 미군정 군의관의 통역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남의 어려움을 보면 참지 못하는 ‘인간 김대중’의 따뜻한 마음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20대 초반, 이미 토론을 할 정도의 영어 구사 실력을 갖췄다는 점도 미뤄 짐작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DJ의 자서전과 주변 증언 등을



지난 12월 26일 나오미 긴스버그 여사가 자신의 남편이 그린 ‘청년 김대중의 초상화’를 들고 있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통해 DJ가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은 50대 이후라고 알려져 있다. 또 군의관 통역 일화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DJ의 목포상고 학적부를 보면 5년 동안 영어를 배웠고,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DJ 자서전을 통해서도 목포상고 졸업 직후 영어와 관련된 일화가 나온다.

1943년 전남기선주식회사에 근무하던 DJ는 돈을 벌기 위해 목포 조선은행을 찾았다가 일본인 지점장과 대화를 하게 된다.

“한번은 지점장과 개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A dog attached to a man, a cat attached to place’(개는 사람을 따르고 고양이는 장소를 따른다)라고 학교에서 배운 영어 문장을 외웠더니 그가 나를 다시 쳐다봤다”-김대중 자서전 53페이지.

또 DJ는 당시 숨진 ‘소희’를 산에 묻기 위해 “미군 CIC(미국 육군 소속 방첩대) 대원이었던 친구 김문수가 지프를 몰고 왔다.(같은 책 64페이지)”고 회상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초상화에 담긴 뒷 이야기와 이를 일화는 20대 초반의 DJ가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 회화가 가능했고, 미군 내부에도 인맥이 있어 군의관 통역을 해줬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장신기 연구원은 “몇 작품 없는 DJ 초상화는 보존 가치가 있다”면서 “학적부 상 DJ가 학창시절 영어를 공부한 흔적이 있고, 당시 목포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 젊은 DJ가 통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확인된 DJ 생전 초상화 3점뿐

적극적으로 찾아 역사화 작업 필요



1954년 청년시절 김대중의 사진

정형모 화백에게 초상화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1989년대 평민당 총재시절 서양화가 민창기가 연필로 그린 초상화도 전해지고 있다.

또 2009년 DJ 서거 후 박건웅씨 등 부친이자 만화가 5명이 아크릴 컬러로 DJ의 초상화를 그려 분향소 건물 외벽에 설치하기도 했다.

서거 1주기를 맞아 2010년 김대중평화센터와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김대중 1주기 추모 여류 서예전’을 통해 서양화가 서기문씨가 DJ의 생전 모습을 세밀화로 옮긴 초상화 4점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 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파란만장한 그의 삶에 비하면 의외로 많지 않다. 연세대김대중도서관 등 DJ를 기념하고 연구하는 단체 등이 찾아낸 그의 생전 초상화는 3점 뿐이다. 사후에 제작된 것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확인된 것도 몇 점 되지 않는다.

먼저 가장 유명한 초상화는 지난 2003년 그려진 ‘청와대 초상화’다.

청와대 본관의 세종실 앞 복도 한쪽 벽면에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그의 초상화도 벽면의 맨 왼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 초상화 속 DJ는 검은색 양복에 분홍색 넥타이를 맨 모습을 하고 있다.

퇴임 직전 함께 일하던 비서관을 통해

서씨는 김 전대통령의 목포상고 재학 시절과 40대 기수문을 주창하던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집무 모습, 이회호 여사와의 행복한 모습 등을 화폭에 담았다.

DJ 사후 초상화를 찾는 작업도 더디고, 기증도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 호주에 거주하는 이주용 화백이 생전 초상화 한 점을 기증했다. 그림 속 모습은 대략 1990년대 초의 DJ모습이며, 기증식 자리에는 이회호 여사가 참여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 추모 정신 어록” 출간을 앞둔 정진백(행동하는 양심 광주협의회회장)씨는 “DJ 초상화는 굴곡 많은 현대사의 표본이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의 생전 초상화를 찾아 자료화하는 역사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



지난해 연세대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DJ 초상화 기증식에 참석한 이회호 여사·이주용 화백의 모습과 호주의 한 화가가 그린 DJ 초상화.

謹賀新年

유권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결합한 스마트한 캠페인, 스마트한 선거 모바일 앱으로 유권자에게 한발자국 더 다가갑니다.

1석 3조의 혜택 정치활동의 동반자
 선거 모바일 웹 + 선거 홈페이지 + 선거홍보영상
 한번에 3가지의 온라인 선거대책을 지원합니다.
 유권자를 사로잡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062. 350. 2324

INTERSAVE | http://i-save.co.kr | Fax. 062, 350, 2329 | Email. web@i-save.co.kr
 502-220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60-37 KDB생명빌딩 2319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살피 주심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가 꿈꾸는 인간중심의 행복한 방향으로
희망을 찾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것 입니다.

프리드
또, 다른 믿음의 시작 2012년
현대중합상조
이사 이동훈

IT전문교육기관
국제직업전문학교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25-7번지
상담전화. 062_223_6123

WOOLIA 대표 김기남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 3F (주)플래티늄
전화. 062_228_1990